

Uncertainty and the Impacts of Structural Oil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연세대학교 조수진교수, 심명규교수

1.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수입 에너지원이 93%에 달하고, 석유의 수입비중이 4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 있어 일반적으로 유가 충격은 중요한 경기변동 요인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소규모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제 특성상 유가 충격과 같은 외생 충격은 중요한 불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유가와 거시경제의 관계를 분석하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해당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유가 변동의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Kilian (2009), Baumeister and Hamilton (2019) 등). 본 연구는 Baumeister and Hamilton (2019)에서 구조적으로 식별한 네 가지 유가충격(유가공급충격/경제활동충격/유가수요충격/재고수요충격)을 활용하여 유가변동의 원인에 따른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차별적 효과가 존재하는지 국소투영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한국의 경우 구조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양(+의 유가충격은 오히려 산업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조적으로 식별한 충격을 고려할 경우 1. 해당 결과는 유가의 상승이 경제활동에 기인한 경우에만 관찰되며, 2. 공급충격이나 재고수요충격에 기인한 유가의 상승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계적인 수요 충격이 유가를 상승시키는 충격이 국내 재화의 수출 역시 증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등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광업/제조업에서 발견된다.
4. 또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의 정도가 유가 충격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Van Robays (2016)의 연구를 따라 국내외 불확실성 수준으로 경제 상황을 나누어서(고불확실성 상태/저불확실성 상태) 추가로 유가 충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뚜렷한 패턴은 관찰되지는 않았다. 다만 해당 추가분석은 산업별 분석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광공업의 경우 고/저 불확실성의 상태에 따라 몇몇 유가 충격에 대한 생산의 반응이 음/양으로 나뉘어 나타났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반응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향후 유가 충격의 한국 경제에 대한 효과 분석에 있어 경제의 상황 및 산업 별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함의한다.

문의처: 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 (☎02-759-5490)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